

바이오벤처 4사 8월29일 공동IR

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8월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코스닥 등록 바이오벤처 4사를 참여기업으로 하는 <제4회 상장바이오기업 공동 IR> 행사를 개최한다.

참여기업은 뉴로테크, 아이비진(인바이오넷), 영인프린티어, 오스코텍 등 4사이다.

뉴로테크파마는 뇌질환 및 염증성질환 블록버스터 신약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

뇌졸중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Neu2000은 미국에서의 임상1상을 마치고, 현재 다국적 임상2상을 준비하고 있으며, 2007년 8월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및 생산공정개발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팬젠을 흡수 합병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 진출하며 바이오제약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.

아이비진 2008년 7월 인바이오넷에서 상호를 변경하며 기술사업 중심 기업에서 허브비즈니스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.

기존 바이오 기술 및 진단기술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분야 사업, 생태독성물질 처리사업, 생활건강분야 사업, 디자인 및 IT 등 다양한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최초로 의료산업 가치공동체 사업인 메드진 사업을 통해 의료, 미용, 헬스케어, 외식 등의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.

영인프린티어는 2007년 8월 상호 및 생명공학분야 과학기기로 기반사업을 변경하고, 2008년 4월 에이비프린티어를 흡수 합병해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항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, 국내외 항체를 공급하고 있다.

오스코텍은 골다공증 및 관절염, 치주질환 관련 합성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분야에서 특화된 R&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뼈관련 질환 R&D 과정에서 축적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 및 완제품, 치과용 뼈이식재 사업화를 통해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형 바이오기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.

참여기업별 투자설명회 및 투자상담 데스크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업설명회(IR)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8/27>